

# '챗GPT'로 골머리 앓는 미국 교육계

## 챗GPT 이용 과제 수행 늘어 ... 평가 방법 다양화 모색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인 '챗GPT'의 영향으로 미국 대학들이 강의와 학생 평가 방식을 재설계하고 있다.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 에세이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존 교수 방식으로는 지도·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최근 조지워싱턴대, 루터스대, 애팔래치아 주립대 등 미국 대학들은 학교 밖에서 오픈북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이 챗GPT를 통해 확보한 정보나 견해를 과제에 그대로 반영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대로는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신 해당 학교 교수들은 구두 시험이나 그룹 과제, 수기 테스트 등을 도입하는 중이다.

정규 수업에 '챗GPT'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북부 미시간 대학의 앤서니 아우만 철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챗GPT의 반응을 고찰



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다. 아우만 교수는 NYT에 "몇가지 질문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교수 방식이 아닐 것"이라며 "이 AI로봇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수업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의 버팔로 대학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퍼먼 대학도 챗GPT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챗GPT가 촉발한 학내 교수 방식 변화에 NYT

는 "많은 대학에서 챗GPT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학 교수들이 챗GPT에 대응해 교실을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교육과 학습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학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챗GPT 대응에 분주한 상황이다. 뉴욕과 시애틀의 일부 공립학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챗GPT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우회 접속을 통해 챗GPT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NYT는 전했다.

챗GPT는 비영리 회사 오픈AI가 개발해 지난해 11월 30일 무료 공개한 AI 챗봇이다.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논리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은 답변을 제공하면서 미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픈AI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사진 = '챗GPT' 홈페이지 캡처

# 미국인 교육관 코로나 이후 크게 변화

## 초·중·고 교육 목적 1위는 삶에 필요한 기술 습득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미국인들의 교육관이 크게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포폴리스는 이날 미국 성인들이 생각하는 초·중·고(K-12) 교육의 목표를 1위부터 57위까지 우선순위를 매긴 '교육 목적 지수'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에 의뢰해 작년 9월 12일~30일까지 미국 전역의 성인 1천10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의 목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먼저 총 57개의 교육 목표 중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답한 뒤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목표를 꼽았다. 그 결과는 코로나19 이전과 크게 달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 목적으로서 '대입 준비'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대입 준비'는 초·중·



고 교육 목적 중 47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10위를 기록했는데, 순위가 37단계나 낮아진 것이다.

특이한 점은 개인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대입 준비'의 중요성은 개인 차원에서는 47위를 기록했지만,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는 3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교육과 관련해 서로 사회적인 오해를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포폴리스는 평가했다.

또한 미국인들은 초·중·고 교육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학생들이 개인 재정 관리이나 식사 준비, 약속을 잡고 지키는 법 등 삶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교육 목표 1순위로 꼽았다.

이 외에도 비판적 사고 능력(2위), 인성 교육(3위), 읽기·쓰기·연산 등 기초 학습 능력(4위) 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5위)이 차례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인종별로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아시아계 응답자들은 다른 인종 응답자들과 달리 여전히 '대입 준비' (10위)를 초·중·고 교육의 주요 목표로 꼽아 코로나19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히스패닉 응답자들은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5위로 꼽아 백인(48위), 흑인(39위), 아시아인(30위)과 차이를 보였다.

사진 = shutterstock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698	\$2,288
Asset Limit	\$15,510	\$30,950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